

# 배꽃 인공수분 작업 6만8000명 필요한데...인력 수급 비상

4~6월 배농사 좌우하는 중요한 작업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30% 줄어  
인건비 1만원 올라도 인력 수급 차질  
나주시, 일손돕기 등 대책 마련 고심

“배꽃이 피는 4월부터 6월까지 인공수분 등 배 재배에 6만8000명이 필요한데 외국인 근로인력이 수급되지 않아 걱정입니다.”

나주 특산품인 배를 재배하는 2100여 농가와 나주시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배 인공수분 시기가 닥쳤지만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다.

배 재배 등 농촌 근로인력의 중추역할을 해왔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입국을 못하면서 벌어진 사태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에서는 2100여 과수농가가 지역 특산품인 배를 재배하고 있으며, 개화가 시작되는 4월부터 6월까지 필요한 과수 재배 인력은 약 6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4월부터 시작되는 배꽃 인공수분 작업은 꽃이 피어 있는 1주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수정시기를 놓치면 착과율이 떨어져 수확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공수분은 1년 배농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수분작업은 오로지 수작업으로만 진행되는 상황이라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담하다시피하면서 지역 배산업의 중추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끊기면서 수급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주시 지역 외국인 노동자 숫자는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력 수급난이 예상되면서 나주시 배 농가에서는 지난해 인건비보다 1만원 인상된 9만원 수준에서 인력을 구하고 있다.

농가들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나주시가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 나주배원협 농촌고용인력센터, 농촌지도자회 등 관계 기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농번기 인력 수급 대책을 논의했다.

주요 대책은 ▲방문 비자 외국인(285명)의 체류목적의 계절 근로 활동 허용 ▲도시지역 농협과 연계를 통한 인력 모집 ▲배 과수농가 작업 일정 조정 등에 따른 효율적 인력 운용 ▲나주시 산하 일자리지원센터, 여성새로일자리센터 농작업 분야 인력 확보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 ▲노동 경감을 위한 농기계 보조사업 검토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운영 ▲공공기관 대상 농촌일손돕기 추진 등이다.

나주시는 지난해부터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와 함께 농촌인력센터 운영, 농협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인력 알선, 소개 수수료 면제, 교통비 지급, 상해보험 무료가입, 농작업 교육 등 영농 부담 해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등 농번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분야별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각 기관과의 협력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수급난으로 인공수분 등 배 재배의 차질이 우려된다.

## 천년고도 나주 앵글에 담는다...나주시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나주시가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을 실시한다. 나주의 색다른 매력을 발굴하고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이벤트다.

2019년 11월 이후 나주 주요 관광지를 촬영한 컬러사진 작품(11×14 규격)을 공모하고, 분야는 카메라·드론 등으로 촬영한

일반 사진과 스마트폰 사진이다. 작품 접수는 오는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1인당 최대 3점을 출품할 수 있다. 원본 파일과 참가신청서, 공모전 서약동의서 등을 이메일(jby0127@korea.kr)로 보내면 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지난해 개최한 나주시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이정은 작 '역사의 현장'.

## 나주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대책본부' 가동

5개 반 22개 부서로 구성

민생경제 위기 극복 대책 추진

나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피해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대책본부'를 가동했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강인규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기구 '지역경제대책본부'를 가동했다.

대책본부는 총괄대책반, 민생안정대책반, 경제산업대책반, 생활SOC대책반, 농업안정대책반 등 총 5개반 22개 부서로 구성, 경제위기 극복 컨트롤 타워 기능을 담당한다.

지난 1일 지역경제대책본부 1차 회의를 주재한 강 시장은 “지역경제대책본부는 경제분야 특단의 비상대책기구로 코로나19 방역 일선의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더불어 비상 국면을 돌파하는 양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시는 주 1회 회의를 열어 ▲소비·투자 등 민생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지원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농산물 판로 개척 및 지원 ▲실업자 지원 등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 정책 추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계층, 업종을 철저히 점검·분석하는 '핀셋형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 나주시의회 8일 원포인트 임시회...추경안 심의

재난긴급 생계지원 등 처리

나주시의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촉발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심의를 앞둔 긴급 추경 예산안은 재난긴급 생계지원, 소상공인 공공기금 지원, 저소득층과 아동양육 등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이다.

나주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나주혁신일반산단 보충증부 부담행위 동의안', '제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재정부담 동의안' 등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김선용 나주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추경예산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투입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 자연장의 장점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